

세 번째 열리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

주님의교회는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새가족사역팀이 주관하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지난 1월 15일(토) 오후 6시에 지하식당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한 장년 새가족 중 76명이 이날 참석하였으며, 소속 교구별 담당교역자와 장로, 구역대표가 함께하여 식탁교제를 통해 교제와 사귄을 함께 나누었다. 저녁식사 후 신영숙집사(새가족 사역팀

장)의 진행 아래 양육위원회위원장인 박호길장로의 기도, 조성곤집사와 이강혁전도사의 축하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한 새가족인 권진아, 정란희 성도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된 큰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권진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해졌으며, 모든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간증을 했다. 그리고 정란희 성도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주는 분 중에 조선족이 있어서 그 분들도 주님의교회로 함께 인도했고, 이 분들을 믿거름으로 중국 선교를 해보고 싶다는 큰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서의 권사회의 역할”

1월 18일 권사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2005년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권사회를 섬기고 있는 이창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권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했다. (4면에서 계속)

서울극장 주최 “2005 사랑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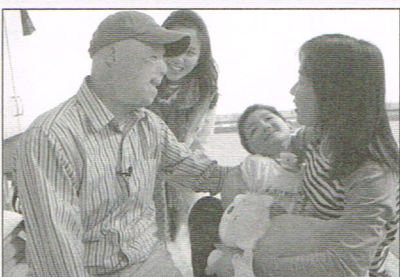
이재철 목사를 강사로 매월 열려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축제가 서울극장 주관으로 열린다. 1월 27일 밤9시를 시작으로, 2월24일, 3월31일, 4월28일, 5월26일, 6월30일 계속된다. 1부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POP, JAZZ, CCM, 가요를 넘나드는 음악의 축제가 있게 되며, 2부는 주님의교회 1대 담임목사인 이재철 목사의 로고스 시간이 있다. 장소는 서울극장 제2 상영관이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늦은 9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이웃을 찾아 어려움 덜어주는 보람 커

“할머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하고 내밀어 드리는 조그만 봉투 속의 우리들의 성금에 “고마워.. 천사가 따로 없어. 요새 모두들 어렵다고 하던데 잊지 않고 찾아주니” 하시며 이내 막 익혀 놓은 따뜻한 고구마 바구니를 내미시는 그 손길 그 표정. 우리가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아서” 하시며 말리시며 다시금 우리를 자리로 끌어 앉히시고 하시는 젊은 날, 추억의 재미나는 말씀들. “집사님! 나도 이제 축구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대요” 하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병상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좋아하는 12살 상근이의 모습도 생각이 난다. (4면에서 계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조엘 소넨버그 오늘 4부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서 간증해



숫당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 조엘 소넨버그는 생후 20개월 때 40톤 트럭과의 추돌사고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그의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규장)로 번역 출판되었다. 조엘은 생후 20개월 어린 아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역경을 딛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다. 조엘은 50여 차례의 수술과 신체와 얼굴의 손상을 견뎌야 하는 고통으로 인해 독특

한 시각으로 주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법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법도 배웠다. 조엘은 신앙과 가족과 친구들의 흔들리지 않는 뒷받침을 통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했다. 조엘은 장애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긴다. 조엘은 자기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엘은 자신의 본분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엘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실을 겪는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실을 겪는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교통사고 18년 후 재판정에 출두해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중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중오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는 오늘 우리교회에서 4부 예배와 청소년 예배 때 간증을 하고, 22일 오후 2시에 종로 영풍문고에서 저자 사인회도 열 계획이다.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신년 첫당회, 2005년 예산안 채택

지난 1월 1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2005년도 1월 정기 당회가 있었다. 목사와 장로 본교회 당회원 총 28명이 모여 새해 첫당회를 하였다.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 문동학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먼저 전회록을 유인물대로 받고, 안건 채택을 한 후, 재정보고와 각 부서보고 그리고 신안건과 기타토의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번 1월 당회로 결의된 사항은 ‘2005년 예산안 심의 건’ 중에서 수입예산(4,765,557원)과 지출예산(4,765,557원)을 안대로 받기로 하였다. (4면에서 계속)

새가족을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자 고민하는 교회

우리교회의 비전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전염은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지만 웃음도 전염이 된다. 전염은 무언가가 매우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전염시킬 궁극적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을 전염시키는 방법은 아마도 사랑의 관계일 것이다. 우리교회는 매 주일마다 수십 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한다. 그러나 주일에 성도들이 같은 시간대에 일시에 예배 장소로 몰리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새가족을 차별하게 교구 목사나 새가족 도우미들이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다. 작년까지 기존에는 4층 대회의실을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 장소를 떠나 어디로 찾아오라는 것은 교회 장소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새가족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새가족팀에서는 교회를 처음 찾는 새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하기위해 새해 첫 주부터 대예배실 앞쪽에 매 예배가 끝나면 바로 교구 표시 팻말과 꽃장

식을 마련하고 교구 목사와 새가족 도우미들이 위치하여 교회를 처음 찾는 새가족을 예배 장소를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다. 또한 우리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받고 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일은 1층 로비에서 새가족팀에 의해 매주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비전과 목적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배려하는 교회로 주님의교회는 계속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 일에 새가족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꿈과 이상을 향해 모든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계속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명따라

중보기도자월례회

2005년 1월 20일 목요일 10시 30분 영아부실에서 평장

히 추운 날씨임에도 정영환 목사와 38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야곱의 축복', '축복의 통로' 찬양을 부르며 사역자 월례회를 시작하여 다함께 통성기도를 했다. 우리의 계획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은숙 권사의 기도가 있었다.

출3:1~10,4:17의 묵상말씀을 통해 정영환 목사는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길 바란다고 하며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자로 부르시는지 자신들이 잠잠히 묵상해 보길 원한다. 모세는 떨기나무 곁으로 갔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였을 때 "너의 신을 벗으라" 하셨다.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섬김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육체적인 때를 벗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온전히 한 해를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자. 교우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데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사역자들이 도구가 되도록 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팡이이다. 그 도구를 사용해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려 하지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의 음성을 함께 듣자. 목사

님의 말씀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묵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부르며 가사를 되새기게 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결음씩 나아가 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찬양을 끝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에는 중보기도 카드작성과 응답카드와 기도카드를 분류하여 하루 1시간 헌신하는 내용을 서로 나누었다. 이 사역은 한 학기에 한 번 중보기도학교에 참여, 헌신하겠다고 작성한 자만 중보기도실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철저한 비밀유지 때문이다. 2월 20일 주일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예배시 선서식도 있을 예정이다.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 신청순서도 가졌다. 중보기도팀 월례회는 교회와 헌신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기도 후 김밥과 차와 과일도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목요모임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명따라

예수전도단과 함께하는 목요모임에서 이번주에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윤은성 목사가 요한 1서 5장 1절~12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윤은성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 전사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상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거나 세상의 위력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세상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악한 자손이나 골리앗과 같이 보는 '때뚜기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의 밭으로 여기고 피떡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이니 모두 힘을 내고 어깨를 펴라고 격려했으며, 힘들고 시대가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대에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였다.

영국의 양심수로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을 소개하며 하사람의 믿음의 경유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본을 삼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전하였다.

(1면에 이어서)

세 번째 열리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

주님의교회는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의 환영의 메세지와 함께 주님의교회들을 계속 번식하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과 다른 교회의 비전들 그리고 목회철학의 설명을 듣고,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교회에 이제 새가족으로 첫 발을 내딛지만 그 동안 5주 새가족 양육교육과 또한 이 날의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통해 교회에 대한 낯설고 서먹서 먹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주님의교회는 내 교회라는, 나는 주님의교회 가족이라는 진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새가족사역팀은 이러한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를 더욱더 알차고 의미있게 준비할 계획이며 환영의 날 행사의 각

격을 지금의 반기 내지 분기별 1회에서 앞으로는 2-3개월에 1회씩 열어 지금보다 적은 수가 함께 모여 더욱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부터 제대로 잘 정착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돕고 그들을 힘껏 밀어줄 계획이다.



해외선교위원회 재한외국인선교부

재한외국인선교부의 활동이 궁금하세요?
잠실운동장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합성의
위력을 기억하는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면 7만명이 입장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인원의 8배인 56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현재 한국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3D 업종의 산업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로 불구가 되고 때로는 힘든 야근을 도맡아 하며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무너져가는 한국중 소기업들을 떠받치고 있지만 냉대와 열시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코리아드림의 부편품을 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였다. 이들의 웅어리진 분노의 시선과 울분의 합성을 놓치지 않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로 따뜻하게 대해 주는 일은 귀한 섬김 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주님의교회 가 외국인 근로자를 섬겨 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잃고 노동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어 내국인도 견뎌내기 어려웠던 이 시절, 외국인들은 더할 나위 없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고통하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며 보호하는 쉼터를 안산에 세웠고 섬기기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상처가 난 심령을 주님의 사랑의 약으로 치료하며 낯선 이 방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우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인터넷을 설치해서 고향에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혼식도 치뤄주고 탈장, 치질수술도 무료로 알선해 받

게 하고, 야유회도 함께 가고 '나눔의 주일'에 교인들이 모아준 정성을 전하며 우리의 작지만 뜨거운 주님이 주신 가슴으로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중에는 파키스탄인인 솔로몬의 신학교육을 도와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에 돌아간 보람도 있었다. 작년 설명절에 문동학 담임목사와 시온찬양대가 함께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열어 위로해주었던 일. 무지개축제에 이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워했던 일.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메던 무슬렘 세네갈인 압둘라씨를 온 국민의 성금으로 에어프랑스로 전세기처럼 의사보호 아래 MBC 취재기자들과 함께 고향의, 가족의 품으로 보내던 엔테베레 작전을 방불케 했던 일들. 안산에 의료진료봉사하는 주님의교회 의료선교진의 따뜻한 진료를 받도록 이들을 모시던 일 등 돌이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이루신 기적들이었음을, 이 시대의 오병이어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합성의 위력만큼이나 수많은 소외된 이들을 다 품어주기에는 우리의 가슴도 도울 손도 너무 작았다. 이 시대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다 감당하기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곳이 많았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누가 이들을 조용히 섬길까? 갈등도 했다. '왜 하필 바쁜 나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나를 하필...' 그럴때마다 현장에서 작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내가 아닌 주님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 주님! 함께 마주 잡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아 분발하고, 술선수범으로 앞장섰던 장로님들의 인품에 힘입어 맘을 고쳐먹고 무거운 발걸음 돌려 기쁨으로 안산으로 달려 가던 그 시간들이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

닫고 그 동안 함께 해주셨던 교우들과 장로님, 담당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지하실에서 여름마다 갈라진 벽틈으로 물이 새어 물바다가 되고, 그 곰팡이 냄새가 일 년 내내 진동하는 그 환경에서 이젠 고잔땅 근린 공원옆에 3층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이들의 기도와 소금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 30년 만에 이제 나그네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3월 입당을 앞두고 있다. 열악한 재정에 어떻게 건축이 가능했는지 본인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신음하던 애굽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 하시던 주님이 이 땅에 하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일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 구체적인 봉사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뜻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그 역사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믿게 된다. 그 동안 보여 주셨던 주님의 행하심을 계속 믿고 기대하며 이제 더욱더 작은 자를 찾아 계속 나서기로 했다. 금년부터는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고된 삶 속에서 태어난 그들의 새 생명들이 한국에서 그냥 방치된 채 자라고 있는 이들.

이 새 세대들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베트남 처녀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새 생명을 출산했으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혼당해 거친 삶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내야 했고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돌봐줄 곳이 없다.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작은 손이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돕고자 한다.

누가 이들과 함께 하겠는가 함께 하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실된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소개 글

김용철 / 전도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초등부에 새로 부임한 김용철 전도사입니다. 저는 자양동에서 아내와 살고 있으며, 이제 신대원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비행기 조종사 시험을 준비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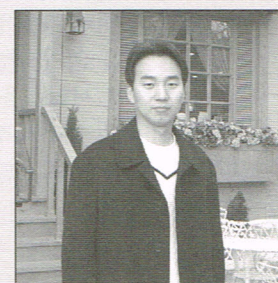
종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 주님의교회 초등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멋지고 탁월한 동역자들과의 만남, 열정과 헌신으로 무장된 교사들과의 만남, 우리의 미래인 초등부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들과의 만남 등등.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이 만남들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린이가 없는 교회의 미래는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래를 살리는 사역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

으며,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행복해지는 날까지 힘껏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초등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이상을 이루어 가는데 즐거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늘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종원 / 전도사



저는 말씀의 회복과 참된 부흥을 꿈꾸는 소년

부 김종원 전도사입니다. 올해 28살로 고향 남원에 계신 부모님과 이제 막 결혼한 누님, 그리고 남동생과 떨어져 지금은 신대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적에 '목회자가 되어보라'는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보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때는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때만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웃들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심령의 뜨거움과, 말씀이 내 안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기

에, 목회자가 되어 그것들을 주변에 계속 나누고 싶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 목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 때 철학을, 신대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부임하면서 '내가 주님의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거장들이 사라진 후 바로 영적혼락의 사사기시대가 온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능력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은 영적거장들이 사라지고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여자친구 사귀는 비결이 무엇이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까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주님의교회 소년부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사랑의 여인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랑에 잠 못 이루는 심정으로!" 저를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핸드북 "스킵퍼 승급"



과정 마치고 표식 달며

1월 15일 토요일, 어와나 모임 시작 전 약 80%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새해 들어 두번째 어와나 클럽 시간을 열었다. 게임시간 40분 / 핸드북 시간 40분 / 교제시간 40분 이렇게 각 과정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느껴진다.

지난 주보다는 기입장과 기계양식이 훨씬 멋있게 진행되었다. 곧 이어서 불티 단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어와나기에 대한 다짐을 거침 없이 잘 외우게 된 모습이 보기에 좋다. 모든 불티 단원들이 입단 과정을 끝냈고 핸드북 "스킵퍼 승급" 과정을 처음으로 끝낸 단원들이 스킵퍼 승급 표식을 달게 되었다. 단원들은 모든 과정 속에서 순수한 모습이어서 교사들이 그런 단원들의 순수함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단원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 몇몇의 불티 단원들이 부모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탈퇴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안타까움이 발생한다. 또한 교회에 올 때 단원들을 부모들이 데려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사정이 생기면 단원들이 결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오늘은 불티 2반 교사들이 사전 교육을 시작한 날이어서 불티 1반의 모든 과정을 함께 참관하게 되었다.

1월 29일은 마지막 토요일이므로 어와나 클럽이 된다. 또한 구정 연휴가 있는 2월 12일 두번째 토요일, 어와나 클럽이 오픈한다.

홍보출판부원 모집

출판부에서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책자 또는 홍보물, 브로셔, 교회요람등을 기획 발간하는 부서입니다. 2005년에 발행하는 출판물을 기획, 취재, 교정, 디자인을 할 달란트를 받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이창현목사 (011-466-4736), 홍보출판부장 김홍용집사 (011-272-6643) 에게 연락 바랍니다.

(1면에 이어서)

신년 첫당회, 2005년 예산안 채택

또한 이번 아시아지역을 위한 해일재난구호헌금을 태국에 있는 홍경환 선교사가 요청한 2000만원을 푸켓지역에 지원하고, 나머지 1100만원과 3338달러, 그리고 1월 9일과 16일에 들어오는 헌금을 포함한 해일재난구호헌금 전액을 스리랑카에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정신여자 중학교 성경교사 지원 건에 대하여 성경교사 1인을 1년간 교회에서 인선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운경장로가 행정장정 수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안 그대로 받기로 하였다. 한편 1월 30일 주일 오후 3시 중예배실에서 제직수련회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회 및 전제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며 1월 정기 당회를 마무리 하였다.

교육위원회 모임



교육위원회 모임이 지난 주일(16일), 오후 1시부터 3층 소년부실에서 있었다.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인 홍민기목사와 각급 부서의 담당 교역자, 부장 및 팀장, 지도원사, 총무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먼저 각급 부서별 담당 부장 및 팀장의 소개와 함께 현재 각 부서별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나눔이 있었다. 올해 교육부 전체 정기 모임 일정을 정하였고, 앞으로 있게 될 각 부서의 행사 점검과 예배실 실내 환기 및 더 나은 예배 환경조

성을 위한 내부수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민기목사는 특히 유아부와 통합아동부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의 확보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고 모임을 마쳤다.

자녀들을 도서실에서 놀게 하라

우리교회 5층에는 다른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도서실이 있다. 이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해본 성도라면 그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금방 매료될 것이다. 대개 성도들의 예배 참여 시간을 보면 해당 자녀의 교회학교 예배 시간대와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부모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자녀는 해당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다시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경우이다. 그러다보니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대부분 11시 30분에 시작되어 성도들도 3부 예배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3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장소마다 방마다 성도들로 넘쳐나는 포화상태를 매주일 늘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가다보니 교회 안에 있는 도서실과 같은 좋은 시설도 한번 이용해 보지 못한 채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금까지 익숙해진 주일 예배 출석 습관을 바꾼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관점을 한번 새롭게 바꾸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만약 자녀가 11시 30분에 아동

부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11시 30분 가까운 시간에 도착하여 자녀를 내려놓고 주차한 다음 서둘러 3부 예배에 참석하기보다, 어느 주일보다 조금 서둘러 교회에 일찍 도착한 다음 자녀와 함께 도서실에서 좋은 신앙과 경건서적들을 함께 읽고 자녀들에게 그 내용도 소개해 주면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주일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1면에 이어서)

이웃을 찾아 어려움 덜어 주는 보람 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상처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극빈 구호 대상 환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등. 따라서 우리교회 공회사역위원회 구제 사역팀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웃을 발벗고 찾아 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둡고 소외된 곳, 때때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팔을 벌린 우리와 우리 팔에 안기는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곤 한다. 구제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공회의 손길에

는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도 크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감동적인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이 뜨거운 감격을 느껴보길 바란다.

설만한 물가에는 찬양과 좋은 책과 맛있는 차와 따뜻한 만남이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설만한 물가라는 교회 카페가 있다. 지금은 학교와 양육 클래스 방학기간이라 오픈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설만한 물가에 오면 동시에 네 가지를 만족 얻을 수 있다. 먼저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이 있고 무엇보다 신앙 및 경건서적의 최근 베스트셀러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다. 설만한 물가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교역자들이 수많은 책 가운데서 엄정하게 정선하여 추천한 서적들을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자 책을 읽기 원하는 성도들은 방문하여 한번 서적들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신앙 및 경건서적을 읽는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얻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서의 권사회의 역할"

언제 어느 때든 일하고 사역하는 교회에는 그 안에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위기와 갈등을 가슴에 깊이 품고 나아가므로 결국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항존적

으로서 권사회의 역할이며 이러한 일은 결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풀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Word"에 대해 철자 하나 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단어를 새롭게 풀이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W: wonder ~인가 하고 생각하다, O: observe 깊이 관찰하여 알아채다, R: reflect 우리 삶 속에 반영하다, D: do 행하다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일으키고 싶어하시는 교회로 주님의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교회의 기둥같은 권사회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교회에 덕을 쌓아가는 권사들이 되는 것임을 다짐하며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2부 순서로 권영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수고로 식당에서 맛있는 고향전골을 요리해서 먹었으며 이후 조별로 다과하며 성도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사립의 시간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